

내 뇌 속의 선택지가 학원 러브 코미디를 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 1권

제1장 아마쿠사 카나데의 만만치 않은 일상 003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1 069

제2장 유키히라 후라노의 진실 071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2 149

제3장 유오지 오카의 새로운 세계 151

막간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3 238

에필로그 240

제1 장 아마쿠사 카나데의 만만치 않은 일상

사람은 길에 야한책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다면 힐끔 보게 되기 마련이다.

고등학생쯤 되면 체면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바로 주을 수는 없지만 , 당연히 있는 힘을 다해 힐끔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펼쳐진 페이지가 조금 마니악했기 때문에 텐션도 약간 상승.

하지만 그런 작은 행복은 쉽게 부서지는 법이다.

[선택하시오. ①얼굴을 파묻고 냄새를 맡는다. ②먹는다.]

지금 현재 내 머릿속에는 이런 선택지가 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지는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야한 책은 보통 내용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다. 책의 냄새를 맡거나 먹어서 흥분한다면 , 이미 맛이 간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 냄새를 맡았다.

역시 흥분되지 않았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가까워서 살색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으앗 , 뭐야, 저 녀석."

"야한 책 냄새를 맡고 있어, 변태다!"

길을 초등학생들이 큰 소리를 내며 손가락질을 했다.

"큰일 났다, 에로 스멜이 이쪽을 봤어!"

"하하, 저 녀석 분명 동정일걸, 동정."

초등학생들은 웃으면서 달려갔다.

".....아침 댓바람부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면서, 야한책을 길바닥에 살짝 내려 놓았다.

'절대 선택지'

내가 멋대로 이름을 붙인 이 현상은 그 이름대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선택지다.

부정기적으로 머릿속에 나타나는 그것은 문자도 음성도 아니다.

어딘가에서 발신된 정보가 직접 뇌에 수신되어서 , 순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할까.

즉, 이것은 오감을 완전히 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을 감든 귀를 막든 , 어느 한쪽을 선택할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어머, 카나데."

갑자기 앞에서 무척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으—."

고개를 들자 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사람은 곤도 다이코(마흔) 씨였다. 근처에 사는 주부로 체중이 족히 세 자리를 넘는다고 하는, 박력 있는 체격의 부인이다.

"카나데, 이제 학교 가니?"

"아 , 네."

편의점에 갔다 오는 길인 듯한 다이코 씨는 ,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봤다.

"누후후 , 여전히 얼굴이 참 귀엽구나."

"—음!"

등골에 오한이 들었다.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에게릇한 호의를 드러냈다.

본인 말로는 내 얼굴이 예전에 헤어진 남편이 젊었을 적과 쌍둥이처럼 똑 닮았다는 모양이다. 이 무슨 쓸데없는 기적인가.

그래서 평소부터 장난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조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지금은 학교를 핑계로 삼아, 이 자리에서 재빨리 벗어나는 게 최선이다.

"가, 감사합니다. 지각할 것 같아서, 이만—."

[선택하시오. ①"안아주세요." ②"본능이 이끄는 대로 안아주세요."]

.....진심입니까.

이 선택지는 때때로 행동만이 아니라, 말까지도 강요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선택지가 나타난 이상은 반드시 따라서관 했다.

그런데 이 ①과②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안아주세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순간, 머릿속의 선택지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동시에 다 이코 씨의 눈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빛이 깃들었다.

"카나데....., 드디어!"

위험하다, 이건 뭔가 위험하다!

"자, 잠깐만요, 방금은 없었던—."

"잘 먹겠습니다!"

뭘 먹어!?

맹렬히 돌진해 온 고깃덩어리가 온 힘을 다해 나를 끌어안았다.

"갸아악!"

이 아줌마는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센 거야! 뼈 부러지겠네! 뼈걱거리는 소리 나잖아!

"하..... , 항보역."

내 비명은 있는 힘껏 무시당했다.

"꼬아아아아악!"

"후우, 잘 먹었습니다."

십수 초 후, 배가 부른(?) 듯한 다이코 씨는 나를 풀어주더니, 만족스럽게 누후후 웃으면서 쿵쿵 걸어갔다.

"흐어....."

힘이 풀린 무릎을 잡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을 겨우 버텼다

절대 선택지의 발생 간격은 완전히 무작위라서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아침 댓바람부터 안면 야한책에 다이코 허그 콤보는 너무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기 시작해서 교차로에 접어든 그 순간,

[선택하시오. ①미소녀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②다이코 씨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아니, 이건 아니지.

다이코 씨는 방금 집으로 걸어간....., 아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 절대 선택지에 물리 법칙 따위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질릴 정도로 맛봤다.

선택지가 나타난 이상 그것이 아무리 비과학적인 내용이라도 선택하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

즉, ②를 선택하면 100퍼센트 확률로 다이코 씨가 떨어진다. 그런 사람에게 직격당하면....., 죽는다. 육체, 정신 양쪽 다.

소거 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①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하니,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이 출현하는 것일까. 머뭇머뭇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정면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쿠응!

"뜨아아앗!"

갑자기 어떤 물체가 맹렬한 속도로 눈앞에 낙하하더니 , 지면에 격돌했다.

"뭐.....뭐야."

나는 엉덩방이를 찢은 상태로 절규했다. 아니 ,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이다, 정말로 뭔가 떨어졌어!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미 뭔가가 떨어졌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강렬한 의문이 떠올랐다.

"뭐야....., 이거?"

왜냐하면 떨어진 그 사람(?)이 브리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떨어진 그 사람(?)이 브리지를 하고 있다..... , 음 , 추가 정보가 제로다.

옆드린 것도, 바로 누운 것도 아니고 , 애당초 쓰러져 있지도 않다.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정도의 브리지가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왜?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광경에 나는 잠시 동안 굳어버렸다.

그대로 수십 초 정도 지났을까. 그 브리지 생물의 자세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 졌다.

그걸 계기로 정신을 펴뜩 차렸다. 브리지의 충격 때문에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괘, 괜찮아!?"

황급히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몸을 흔들었다.

"응....., 후류?"

그 사람은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은 멍한 목소리를 냈다.

"다 , 다행이다....."

일단 생존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내 눈앞에서, 그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어라? 여기는....., 어딘가요?"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 도중, 나와 눈이 마주쳤다.

"으....."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병적일 정도로 하얀 피부, 풍성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금발에, 축축하게 젖은 동그랗고 파란 눈동자. 초콜릿을 본뜬 듯한 색깔의 동화에 나올 것만 같은 의상.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지나치게 아름다운 이목구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외모에, 나는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나를 향해 그 소녀는 얼굴을 활짝 폈다.

"아마쿠사 카나데 씨지요."

"응?"

갑자기 나를 풀 네임으로 불러서 당황했다.

"어.....어어 , 그런데."

당황하면서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내 머릿속 어디에도 이런 미소녀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기..... , 너는?"

"네, 제 이름은 말이죠..... , 어라? 제 이름은 말이죠..... , 그게....., 뭐였죠?"

"아니....., 난 모르는데."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동작을 취한 뒤에 손뼉을 탁 쳤다.

"알겠어요, 전 가벼운 기억 상실증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기운찬 목소리로 할 만한 말은 아닐 텐데.

"분명 떨어졌을 때 , 머리에 강한충격을 받은 걸 거예요."

아니, 너, 엄청나게 깨끗한 브리지로 착지해서 머리는 떠 있었거든.

"뭐 , 괜찮아요. 조만간 생각날 테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람쥐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람쥐라니 , 한물간 개그잖아. 게다가 그 런 외국인 느낌 만발한 비주얼로 말하니, 위화감이 엄청나다.

"아, 정 그렇다면 임시로 다람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사양하겠습니다.

"뭐, 이름에 대해서는 제쳐 두죠. 카나데 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응?"

바로 옆까지 다가와서 무방비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는 그 소녀에게서 문득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뭘까, 강렬하기까지한 이 기시감은.

“왜 그러세요? 카나데 씨.”

알겠다, 강아지다.

멋대로 다가와서 조건 없이 호의를 드러내는 이 느낌. 이 소녀와 강아지는 인상이 무척 비슷하다.

나는 그만 반사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차 싶었지만 그녀는 싫어하기는커녕, 기뻐하며 웃었다.

“에헤헤.”

“응?”

그녀의 앞머리 일부가 느닷없이 부자연스럽게 우뚝 솟았다. 쓰다듬는 것을 멈추자 원래 모양으로 스르륵 돌아갔다.

“아, 이건 말이죠, 기쁜 일이 있으면 어째서인지 멋대로 서더라고요.”

꼬리냐....., 역시 강아지다, 이 녀석은.

갑자기 어떤 욕망이 솟아올라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어보았다.

“손.”

“넋.”

.....하잖아.

“앉아.”

“넋.”

하잖아....., 이 녀석, 완전히 강아지네.

쿠규우우우우우.

그때 뜬금없이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순간 어딘가의 성우에게 외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 애의 뱃속에서 난 것 같다.

“배, 뱃가죽이랑 등가죽이 붙어버릴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험쌀인가.

“배가 많이 고프가 보네..... 아, 맞아. 아직 몇 개 남았을 거야.”

나는 문득 떠올라서 가방 안을 뒤적거렸다. 있다.

내 손에 든 한 입 사이즈의 초콜릿을 본 순간 , 그녀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아 , 초콜릿이에요!"

"이런 거 좋아해?"

"정말 좋아해요!"

만면에 웃음을 띤 그녀. 진짜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은 금기지만, 이 애는 강아지 같아도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 맞지?

"자."

껍질을 벗겨서 가볍게 공중으로 던졌다. 그녀는 초콜릿이 떨어지는 곳으로 콩 뛰어올라서, 초콜릿을 입으로 잡았다.

"마히썸요."

그녀는 행복한 듯이 웃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 꼬리 같은 앞머리가 쫘긋 서 있었다....., 재미있네.

"아 , 이걸로 해요."

그녀는 초콜릿을 다 먹고 손뼉을 탁 쳤다.

"이거?"

"초콜릿으로."

"엉? 뭘?"

"제 이름 말이에요."

"아니.....,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카나데 씨, 초콜릿 좋아해요?"

"뭐, 가방에 가지고 다닐 정도니까 , 단것은 대체로 좋아하는데."

"그러면 제 이름은 초콜릿으로."

그 안이한 발상은 뭐냐.

"아니, 초콜릿은 이상하지, 초콜릿은."

"그런가요? 그러면....., 살짝 지적으로, 쇼콜라로 하죠!"

어느 부분이 지적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쇼콜라라면, 뭐, 초콜릿보다는 이름이라는 느낌이 들었
다....., '강아지의' 이라는 조건이 붙겠지만.

“자, 결정이에요!”

뭐, 본인이 수긍한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

잃어버린 건 기억의 일부인 것 같으니,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름이 생각날지도 모르고 말이다.

쇼콜라(?)가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목적부터 물어보았다.

“카나데 씨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말했다.

“뭐? 내....., 시중?”

“네, 아직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것만은 분명해요.”

어쨌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그렇구나....., 그러면 출신이라고 해야 하나, 어디서 왔어?”

“저기요!”

그녀는 머리 위를 척 가리켰다.

“응? 북쪽이라는 말이야?”

겉모습으로 봐서 동양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니, 러시아나 북유럽 쪽일까.

“아니요, 하늘 위요.”

“하늘..... 위?”

“맞아요!”

아니, 그야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요컨대, 너는 내 시중을 들기 위해, 하늘 위에 있는 세상에서 찾아왔다는 말이야?”

“그래요!”

만면에 미소를 띠며 승리 포즈를 취하는 쇼콜라. 대조적으로 내 안에서는 무언가 열이 스욱 식어
버렸다.

“안녕.”

“왜, 왜 가버리는 건가요, 기다려주세요!”

아니 , 그야....., 엄청 수상하잖아.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까 , 시험 삼아 옆에 뒤 보세요!"

어쩐지 두 손을 비 비면서 바짝 뒤쫓아 오는 쇼콜라.

"아니, 됐거든요."

"지금이라면 세제도 드려요!"

"신문이냐."

"수박이랑 튀김도 얹어 드릴게요!"

"배탈 나잖아!"

"원숭이랑 사과도 얹어 드릴게요!"

"바나나도 기차도 필요 없어!"

"혼인 신고서랑 이혼 서류도 얹어 드릴게요!"

"그건 절대로 같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

"땅이랑 땅문서도 얹어 드릴게요!"

"그건 좀 갖고 싶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겠지!"

"'구리와 구라'도 얹어 드릴게요!"

"갖고 있어! 명작이니까 이미 갖고 있다고!"

"바보랑 시험도 얹어 드릴게요!"

"뭔가 하나 부족하잖아! 그것만 있으면 그냥 낙제점이잖아!"

"그러면 '이 수상한 향아리를 사겠습니다.' 라고 적힌 서류에 사인을."

"혼란을 틈타서 뭘 팔려고 하는 거야!"

.....큭, 이 녀석은 도대체 뭐야.

이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나는,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아아앗!"

뒤에서 엄청나게 작위적인 목소리가 났다. 하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앞으로 걸었다.

“아아아앗!”

.....반응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기 때문에 , 마치 못해 뒤를 돌아보니, 쇼콜라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교태를 부리면서,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꺼냈는지 소도구로 손수건을 입에 물고 있었다....., 어쩐지 짜증 난다.

“그럼 , 이만.”

“자 ,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연약한 여자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괜찮니 , 베이비.’ 라고 , 그럴듯한 배려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대사를 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르뿐이다.

“있잖아, 나는 지금 학교를 가야 돼. 너 같은 애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거든.”

호칭이 자연스럽게, 너에서 너 같은 애로 바뀌었다. 내 뇌가 이 생물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자자 , 그런 말씀 마시고 뭐든지 들어드릴 테니, 명령해주세요!”

“그럼, 나한테 상관하지 마.”

“아 , 유감이네요. 제 힘을 뛰어넘는 소원은 이를 수 없어요.”

네가 용신이나.

난감하다....., 이 이상한 생물을 떼어 내려면 , 어떻게 해야 좋을까.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던 내 시야에 이쪽으로 다가오는 어떤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다.

“쇼콜라 씨, 쇼콜라 씨.”

“네, 무슨 일이죠?”

가방에서 남은 그것을 꺼냈다.

“아, 초콜릿이에요!”

“갖고 싶어?”

“네!”

초콜릿을 쥔 손을 머리 위에서 흔들어 보였다.

“주세요!”

쇼콜라는 쿵쿵 뛰어봤지만 키가 작아서 전혀 닿지 않았다. 머리 위에서 초콜릿을 흔들면서 타이밍을 잴다.

좋아, 딱 괜찮을 것 같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얏!”

이쪽으로 달려와서 스쳐 지나가는 경트럭의 짐칸에 초콜릿을 던져 넣었다.

“아, 초콜릿 씨, 기다려주세요!”

쇼콜라는 폴짝거리는 발걸음으로 경트럭을 따라갔다.

트럭은 순식간에 멀어져 갔지만 쇼콜라는 포기하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다.

“진짜로 따라갈 셈인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바보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멋지게 걸려들 줄은 몰랐다.

골든 위크가 끝나서 달력상으로는 이제 막 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였지만, 기분 좋게 따스한 햇볕에는 아직도 봄의 분위기가 짙게 남아 있었다.

“뭐....., 이상한사람은 조심해야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리면서 학교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2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사립 세이코 학원은, 1학년에만 반이 열다섯 개나 되는 상당한 맘모스 학교이기 때문에, 부지도 쓸데없이 넓다.

즉, 교문에서 현관까지도 꽤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안면 야한책, 다이코 씨의 허그, 수수께끼의 강아지스러운 생물과의 조우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부하가 걸려 있던 나는, 진저리를 치면서 교정을 횡단했다.

몇 분 뒤, 겨우 현관까지 도착했다. 다행히 2학년 1반 교실은 2층의 맨 앞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나머지는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안녕.”

나는 교실 문을 열고 눈에 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내 자리로 가려는 도중에,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여자애가 눈에 들어왔다.

유키히라 후라노.

정말로 그냥 서 있는, 단지 그뿐인데도, 그 모습은 묘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어서, 유키히라의 주위만 이질적인 공기로 뒤덮인 것 같았다.

이름의 이미지를 그대로 체현한 것처럼, 하얀 머리색은 창문에서 비치는 햇빛을 받아서, 금방 내린 눈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여어, 안녕, 유키히라.”

그녀가 그 목소리에 반응해서 고개를 돌렸다. 어딘가 무기질적인 인상은 있지만 무척 아름다운 이목구비다.

유키히라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안녕, 구더기 자식아.”

“.....영?”

말도 안 되는 폭언이 날아왔다.

다른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누가 뭐래도 상대는 유키히라다. 이 정도로 기가 죽어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어, 오늘은 날씨가 좋네.”

“좋은 것 같네, 구더기 자식아.”

“이런 날은 학교 땡땡이치고, 어딘가 놀러 가고 싶어지는 걸.”

“어머, 의외로 개구쟁이구나, 구더기 자식아.”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인데, 그게 어쨌다고, 구더기 자식아.”

“당신은 화제 전환이라는 말도모르십니까!?”

키히라는 연성을 높이는 나에게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별것 아닌 벌레 농담이야.”

“벌레....., 농담? 도대체 그게 뭐야?”

인생에서 처음 듣는 단어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말이야, TV의 운세 코너에서 오늘은 뭔가 벌레랑 관련된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나왔거든. 꼭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신경이 쓰이잖아?”

“응, 그래서?”

"그렇다면 농담으로 웃어넘기자 싶어서."

"무지막지한 역발상이군....."

"나는 운명에 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반골 기질이 있는 여자니까. 수궁이 가지 않는 일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저항 할거야."

"아니..... , 어떻게 봐도 그런 장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

"덧붙여서, 아마쿠사 군이 정 싫다면, 다른 벌레 농담을 들려줄게."

"아니 , 괜찮은데."

"덧붙여서 , 아마쿠사 군이 정 싫다면 , 다른 벌레 농담을 들려줄게."

아무래도 들어줬으면 싶은 모양이다. 어설픈 거절해 봤자 길어지기만 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만 들어볼까."

"....."

"유키히라?"

"....."

"여보세요, 유키히라 씨?"

"헤이, 내 말 좀 들어봐 , 무슈. 오늘, 멍청한 반 친구를 무시해줬다네!"

시시하기 짝이 없었다.

"덧붙여서, 지금 한 농담은 벌레와 무시의 발음이 같은 것만이 아니라, 무슈와도 미묘하게 비슷한 데, 눈치했어?"

".....아니 ,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먹히지 않은 개그를 스스로 설명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멘탈이 강한 걸까.

"그러면 방금 개그를 위해서 나설 자리를 잃어버린 조지는, 도대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돼!?"

"그건 또 누구야!?"

유키히라 후라노는 기본적으로는 쿨한 캐릭터지만, 때때로 개그를 치거나 갑작스럽게 텐션을 올리는 통에 , 아직도 진짜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

"어머 ,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야 , 아마쿠사 군? 마치 당장이라도 어린 여자아이를 덮치러 갈 것 같은 표정인 걸."

".....도대체 그게 어떤 표정인데."

“혹은 마을 입구에서 영원히 ‘여기는 시작의 마을이어유.’ 라는 대사를 되풀이하는 마을 사람 같은 표정이야.”

“아니 , 그 두 개 사이에서 눈곱만큼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혹은 마을 입구에서 영원히 ‘하아..... , 하아....., 너 혹시 조그마한 여자아이 못 봤냐?’ 라는 대사를 반복하는 마을 사람 같은 표정이야.”

“억지로 합쳤을 뿐이잖아!”

.....안 되겠다 , 이런 녀석을 상대해봤자 피곤해질 뿐이다. 대화를 포기하고 유키히라의 옆을 지나 치려고 한 그때.

[선택하시오. ①“있잖아, 네 가슴 좀 만지게 해줘, 가슴.” ②“있잖아, 내 가슴 좀 만져줘, 가슴.”]

.....응 , 이상해. 이건 이상해.

사람은 보통 이런 변태적인 선택을 강요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항한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그래 , 처음에는.

절대 선택지가 출현했을 때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아파진다. 이상.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처음에는 둔탁한 통증 정도로 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가 안쪽에서부터 죄어드는 것 같아지면서 , 상식을 벗어난 통증으로 발전한다.

두개골은 형태를 유지한 채로 안의 뇌수를 날려버리는 것 같다고 표현해야 할까. 그런 짓은 얼굴에 일자 상처가 있는 여자도 못할 것이다.

즉, 저항은 무리 , 무용(無用), 무위(無爲)다.

인간은 당연히 숨을 쉰다. 강아지는 당연히 말을 하지 못한다. 절대 선택지가 나오면 당연히 고른다.

그런고로.

“있잖아, 내 가슴 좀 만져줘, 가슴.”

그 대사를 내뱉은 순간, 유키히라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아마쿠사군, 지금 뭐라고?”

되묻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누구라도 귀를 의심하겠지.

"아니, 이진 말이야——."

"혹시, 나한테 너의 숨기를 만지라고 한 거야?"

".....응? 지금, 뭐라고?"

무심코 내가 되묻고 말았다. 이 녀석 지금....., 숨가라고 한 건가?

"내가 묻고 싶은 건, 네가 '내 숨가를 만져줘.' 라는 발언을 했냐는 거야."

"아니....., 비슷한 소리는 했지만, 숨가라고 하지는——."

"숨가라고 안 했어? 이상한걸, 나한테는 분명하게 숨가라고 들렸는데. 숨가라는 단어는, 절대로 잘못 들을 리가 없을 텐데....., 아아, 숨가라고 한 게 창피해서 숨기는 거야? 숨가는 그렇게 외설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숨가라는건——."

"네가 숨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뿐이잖아!"

"인정할게. 그래도 들어봐. 너한테도 건잡을 수 없이 숨가라고 외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 아냐?"

"없어!"

"왜 없는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이번만은 유키히라가 괴짜라서 다행이었다. 이런 선택지가 다른 여자애랑 있을 때 출현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작년 반에서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여자아이 앞에서 그런 짓이나 이런 짓이나 저런 짓을,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행동을 강요받아서....., 아니, 울고 싶어질 뿐이니까 다시 떠올리는 건 그만두자.

어쨌든 이 절대 선택지는 나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고서 즐 거워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소녀 게임에 비유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배드 엔딩으로 직행인 내용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연애의 '연' 자도 구경하지 못했다.

딱히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나를 보고 겁을 먹거나, 백안시하지 않고) 여자애랑 대화하고 싶을 뿐인데.....

그나저나 오늘은 평소보다 한층 선택지의 출현이 많은 데다, 내용도 자비가 없다. 얼른 자리에 앉아서 암전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유키히라의 옆을 총총히 지나치려고 한 그때.

[선택하시오. ①“있잖아, 네 습가 좀 만지게 해줘, 습가.” ②“있잖아, 내 습가 좀 만져줘, 습가.”]

.....필요 없다고. 이런 ‘흐름을 읽어봤습니다.’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속으로 불평을 해 봤자 거부권은 당연히 없다.

“있잖아, 내 습가 좀 만져줘, 습가.”

그 말을 들은 유키히라는 무표정인 채로 입을 열었다.

“미안. 그런 외설적인 단어를 내뱉는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너, 무슨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입이야. 틈만 나면 습가라고 하는, 이 입이야.”

“네 사전에 일관성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내 사전에는 습가라는 말밖에 없어.”

“그럼, 평생 습가라고 외치고 다녀봐!”

“아마쿠사 군....., 설마, 이런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으그아악!”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헝클었다. 안 되겠다....., 진짜로 상대 못하겠다. 아직도 농담을 덜 한 듯한 유키히라를 뿌리치고, 내 자리로 향했다.

아직 흐름 시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피로감이 느껴졌다.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응?”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우오웃!”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 아맛치다. 안녕!”

그 인물은 유리창 건너편에서 웃더니 기세 좋게 창문을 열어 젖혔다.

"토웃!"

뒤이어 창틀에 다리를 올리더니 특촬 히어로 같은 기합을 지르면서 교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유려한 검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가볍게 착지했다.

"너..... ,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교실 안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그녀, 유오지 오카는 힘차게 엄지를 세우고 말했다.

"하하, 생활지도 선생님이 현관에서 지키고 서 있기에 벽을 타 봤습니다!"

봤습니나라니..... , 대단한 높이는 아니니까 떨어져도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애도 아닌데 생각이 났다고 해도 보통은 안 하지 않을까.

눈앞에 있는 소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윤기 있는 검은 생머리. 굴곡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이 가는몸매. 양갓집 규수 같은 분위기가 나는, 온화한 인상의 이목구비.

하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초등학생처럼 소란스럽고 , 표정은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무쌍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반복한다.

학교 건물의 벽을 기어오른다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도 유오지라면 , '아아 , 그럴 만하지.' 라는 한마디로 넘어가고 만다.

"어라, 아맛치. 어쩐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인데. 무슨 일 있었어?"

유오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한계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으....."

좀 더 남녀라는 사실을 의식해주었으면 싶었지만, 이 아가씨에게는 무리한 요구일까.

"그게, 아침부터 이것저것 있었거든....., 그보다 등에 멘 그 배낭은 , 뭐야?"

유오지의 등에는 도대체 어디로 야반도주를 할 셈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질 정도로 , 뽕뽕하게 부푼 배낭이 매달려 있었다.

"오, 잘 물어보셨습니다. 냐하하 , 이걸 밀수하려다 보니 현관으로 오지 못한 거야."

유오지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기뻐하면서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무게를 메고서 벽을 기어오른 건가....., 도대체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란 말인가.

"이것 좀 봐봐 , 우리 시제품이거든."

유오지는 배낭의 내용물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늘어놓았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 대부분에 각인되어 있는 마크는 'COG' 의 로고였다.

아직도 믿기 어렵지만 , 이 유오지는 놀랍게도 세상이 다 아는 천하의 대기업 UOG 사장의 영애

다.

UOG의 사업 내용은 식료품, 의류 및 화장품, 가전, 서적 등 실로 다양해서, UOG 관련 제품이 하나도 없는 집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거, 기획 단계에서 기각된 건데, 상품개발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았거든. 뭐라더라~, 앞으로의 기획에 참고가 되도록 젊은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듣고 싶대.”

유오지의 목소리를 듣고, 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아무리 기각된 시제품이라고는 해도,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UOG의 제품에 흥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카, 그게 뭐야?”

제품을 제각기 손에 들고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놓는 와중에, 여자애 하나가 엄청나게 유독해 보이는 붉은색 병을 가리켰다.

“아아, 그건 말이야, 권태기를 맞은 사모님을 위한 여성판 정력제 같은 거래.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모양이야.”

그런 걸 고등학생에게 의견을 물어서 어쩔 건데.....

“그게 말이야~, 효과도 좋고, 가격도 낮게 책정했는데도, 문답무용으로 기획 회의에서 기각됐다더라고~.”

“흐음, 왜 그랬을까.”

아무 생각 없이 병을 손에 들고 빙글 돌렸다. 엄청나게 화려한 로고로 된 상표명이 눈에 들어왔다.

‘옹녀Z’

“응....., 일단 이름이 아웃이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엄마 아침밥에 슬쩍 섞어봤더니, 갑자기 하아하아거리면서 ‘오카....., 여동생 갖고 싶지 않니?’ 라고 하던데.”

“너, UOG 사장 부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유오지의 어머니 유오지 쿄카는 20년 정도 전에 당대를 풍미 한 전 아이돌이다.

당시의 다른 아이돌들이 모두 하나같이 깎깎거리는 노선이 있던 것에 비해, 그녀는 총명하고 이지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고 한다.

비즈니스계의 총아, 유오지 오마와의 결혼을 계기로 은퇴하고, 이후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피했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뉴스 같은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녀의 인상은 다른 어떤 말보다 쿨하다는 한마디면 충분했다. 친부모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에

게 인체 실험이나 다른 없는 짓을 해서 옹녀로 만들어버리는 유오지....., 아니, 그 유오지 쿄카에게서 이 유오지가 태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뭐, 유오지 가의 수수께끼는 제쳐두고, '옹녀'가 기각된 원인은 이름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무책임한 효과를 지닌 약물이 유통돼버리면, 일본 사회는 틀림없이 붕괴할 것이다. 각설하고 다른 상품에 시선을 던졌다. 구석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는 소형 프린터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그 기계의 가운데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뭉치가 끼워져 있었다.

"유오지, 이걸 뭐야?"

"응, 그건 말이지, '다발이에요.'라는 이름의 유아용 완구인데, 자기만의 지폐를 만들어서 노는 거야."

과연, 종이의 표면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는 커다랗게 '지폐'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지폐 다발을 손에 들고 팔랑팔랑 넘겨봤다.

"오, 꽤 괜찮은....., 응? 왜 진짜가 섞여있는 거야?"

중간에 한 장, 아무리 봐도 가짜가 아닌, 유키치 선생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나하하, 이거 엄청나게 고성능인데, 내가 시험 삼아 만들어 봤더니, 어쩐지 진짜랑 똑같이 되어 버렸어."

"사건이잖아!"

완전히 아웃입니다, 아웃.

"정말이지, 좀 더 제대로 된 건....., 오, 이거 '인생 캔디'잖아."

인생 캔디는 UOG의 제과 브랜드 '유오지'의 룡런 상품이다. 테마에 따라 '~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른테면 이런 느낌이다.

'연애 편, 짝사랑 맛, 고백 맛, 천생연분 맛'

각각 안타까움을 상징하는 신맛, 두근두근하는 미움을 표현한 강렬한 매운맛, 가슴이 벅차오르는 진한 단맛으로, 구성은 엉망진창이지만, 맛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소재와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이 좋은 반응을 불러서,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인 '애니멀 캔디' 시리즈와 함께 인기를 양분하고 있다.

"이것도 말이지, 기각된 게 엄청 많다고 한탄하고 있더라고~."

유오지가 몇 개를 집어서 획 건네주었다.

"난봉꾼 편, 양다리 걸쳐버렸네 맛, 둘 다 임신해버렸네 맛, 칼 맞아버렸네 맛."

"마지막은 왜 귀엽게 말하고 있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니잖아!"

'중간 관리직 편, 위아래로 끼어서 위통 맛, 정리해고 맛, 쉼에 길바닥에서 객사 맛.'

"너무 슬프잖아!"

'사후 세계 편, 저승 선물 맛, 삼도천 맛,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 맛.'

"이런 걸 누가 사냐!"

'니트 편, 과연 맛, 내 노후는 맛, 어떻게 되는 걸까 맛.'

"알 게 뭐야!"

'당첨이 나오면 하나 더 편, 당첨일까? 맛, 광일까? 맛, 바보가 여기 있네~.'

"바보 취급하는 거냐!"

그보다 이미 전부 맛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